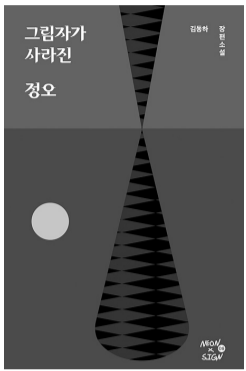


“슬픔에 관한 재인식의 과정 그렸죠”

함평 출신 김동하 작가 소설 발간 판타지 ‘그림자가 사라진 정오’ 슬픔 잊기 위한 그림자 거래 다뤄 “소설은 친구...오래 같이 견고 싶어”

“나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슬픔을 은뎀으로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소중하다고 여겼던 대상을 잃고도 비통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공허한 삶일까요. 슬픔이란 애듯했던 관계의 흔적일지도 모르지요.”



비롯해 앞으로 그 어떤 슬픔도 느끼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김 작가는 “이번 작품은 판타지적인 가상의 설정과 허구적인 내용들로 이뤄져 있지만 산사태와 지진이라는, 실제 있을 법한 재난 요소가 복선으로 깔려 있다”며 “집필을 시작하기 전 재난과 참사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세월호 참사에 관한 유가족 인터뷰집과 기자단 기록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며 “영감을 얻기 위해 정동진 시계박물관에 견학을 가 취재를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김 작가가 처음부터 판타지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던 건 아니다. 구상했던 이야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이 뭘까 고민하다 판타지로 낙찰을 봤다고 했다.

“특히 판타지라는 형식 자체로 인해 힘들다고 느끼진 않았어요. 다만 재난이라는 무거운 소재를 판타지적 설정에 녹이려고 했기에 흑역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습니

다.” 그가 소설을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중립성이다. “쓰고 있는 소설이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자의식과 영에 빠지지 않는 객관화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것처럼 어려운 부분은 없지만.

“전업 작가로서 어려움은 없느냐”는 물음에 김 작가는 “많이 읽고 쓰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현재는 해남 땅끝순례문학관 상주작가로 있기에 일정 부분 직장인처럼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문학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차기 작도 구상하고 있다”는 말에서 다음 작품에 대한 기대감이 읽혀졌다.

그는 요즘 들어서 예전에 생각했던 소설에 대한 생각이랄까 관점이 조금 바뀌었다. 아마도 창작에 대한 변곡점이 왔는지 몰랐다.

“소설을 쓰기 시작하고 몇 해 안 지났을 때는 소설이 첫사랑 같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친구 같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아요. 이 친구와 오래 함께 견고 싶습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복 부르는 벽사진경 ‘사자탈춤’

국립남도국악원, 다음달 31일 ‘연희점추리’ 초청 연희극



연희점추리가 연희극 ‘백수지왕’을 선보이는 장면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창작연희극 ‘백수지왕(百獸之王)’은 근심·걱정에 빠진 한국을 배경으로 우리나라 사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작품이다. 액운을 쫓고 복을 불러온다는 ‘벽사진경’의 의미를 각 지방 사자춤에 담았으며 긍정적인 기운을 전한다.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 공연예술단체 ‘연희점추리’를 초청해 연희극 ‘백수지왕’을 펼친다. 오는 8월 31일 오후 3시 국악원 진악당.

사자탈을 입은 ‘사자특공대’가 등장하는 시늉시스는 성인은 물론 어린이 관객들의 이목을 끈다. 공연은 ‘초록별 지구’를 배경으로 펼쳐지며, 지구에 흩어져 있는 ‘삼색 방울’을 찾아 나서는 내용이다.

신묘한 방울들은 지구가 위험에 처했을 때 빛을 발하거나 울음을 내는 신기(神器)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빛이 바래고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아 전 세계는 근심과 걱정에도 빠진다.

한편 각 지역을 수호하던 ‘사자’들은 사자특공

대를 결성하고 ‘백수지왕’의 명령 아래 삼색 방울의 정기를 되찾기 위해 출동한다. 북청사자놀음에서 양반의 하인 역할을 하는 인물 ‘꼭쇠’를 중심으로 모인 사자들은 과연 방울을 올리고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

한편 ‘연희점추리’는 한국 문화를 기반으로 전세계에서 활동하는 예술 단체다. 이들은 판소리극 ‘소리담’,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 ‘우금치와 읍내 아트 페스티벌’ 등 다양한 전통예술 무대에서 자신들만의 레퍼토리를 펼쳐 왔다.

국악원 정순영 주무관은 “각 지방 사자춤에 깃들여 있는 역동적인 춤사위는 긍정적인 기운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공연등을 위해 진도 읍사무소부터 오산초, 석교 농협, 금강 버스정류장 등을 오가는 ‘토요상설 셔틀버스’도 운행하니 많은 관객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무료 공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무형유산 보유자에 전통예술 배워 보세요

광주문화재단, 8월20일~11월30일 예술강좌 14개 프로그램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 일반 시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2024 하반기 전통문화예술강좌’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25일부터 8월 7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강좌당 15명(선착순)을 모집할 예정이다. 전통문화관 누리집(홈페이지)과 전화로 접수 가능.

강좌는 8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매주 1회) 총 15주에 걸쳐 진행하며 ‘전통음악’, ‘전통음식’, ‘탱화’, ‘장구만들기’, ‘민화’ 등 총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모집 부문은 ‘심청가’, ‘춘향가’, ‘흥보가’ 등 판소리 5강좌를 비롯해 판소리 고법, 가야금병창(판소리, 민요), 탕화, 민화, 미니장구만들기 등이다. 청소년 가야금병창, 우리아이 IQ, EQ 높이는 영양음식&생활음식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전통음식 강좌’ 등도 준비돼 있다.

판소리 강의는 광주시지정 무형유산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인 방성준, 이순자와 ‘흥보가’ 보유자 김선이, ‘심청가’ 보유자 최연자 등이 맡는다. 판소리춘향가 전승교육사인 박미정과 판소리고법 전승교육사 양신승도 강의를 진행한다.

이밖에 무형유산 ‘가야금병창’ 보유자인 문명자, 이영애, 황승욱 등은 청소년가야금 병창을, 남도의례음식장 보유자인 최영자, 민경숙은 전통음식, ‘탱화장’ 보유자 송광무는 탕화를 강의한다.

전통문화팀 김연아 담당은 “일반, 청소년, 초급반, 중급반 등 대상층별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수강생의 특성에 맞춰 진행되는 ‘맞춤형 강좌’라며 “아울러 광주시 지정 무형유산 가예능 보유자에게 직접 기예를 배울 수 있다”고 했다.

수강료 10만원(재료비 별도).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 문화예술 전략과제 자문 받는다

광주문화재단 자문위 16명 구성... 행정·AI전문가 등 다양화

문화재단의 전략과제 등을 제언하는 ‘문화예술 자문위원회’가 구성됐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용·재단)은 지난 26일 ‘2024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재단 일원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위촉식과 더불어 재단 경영5기(2024~2026) 중기경영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시민이 있는 문화·예술 가치 실현’을 위해 비전을 선포했으며 재단 전략과제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제

시했다.

문화·예술계, 교육계 인사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위원장 성심은·자문위)은 향후 1년간 재단 역점사업과 광주시 문화정책 등을 제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문위는 문화정책, 대외협력, 문화예술지원, 문화경영 등 5개 세부분과로 이뤄져 있으며 ‘광주문화재단 이사회 운영규정’과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자문위 운영규칙’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다.

재단은 문화행정, AI전문가 등으로 위원 위촉

범위를 다양화했다. 성심은 위원장을 비롯해 김미라(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김소진(독립큐레이터), 김재희(광주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 손영미(조선대 K-컬처공연기획과 교수) 등이 명단에 있다. 또 안창욱(GIST 인공지능연구소장), 안태홍(전남과학대 게임제작과 교수), 양진호(인문학교육연구소장), 윤현석(컬처네트워크 대표) 등이 포함됐다.

재단 노희용 대표이사는 “시민 눈높이에서 재단의 정책 방향성과 역점 사업 등에 대해 자문에 줄 전문가들을 모셨다”며 “자문위 구성은 ‘중기 경영 전략’ 마련을 위해 힘써온 재단 사업의 일환으로, 향후 시민이 중심이 되는 예술현장을 구현하는 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